

미 증시, 은행 리스크 완화 속 기술주 중심 차익 매물로 상승 반납

서상영

미 증시 동향: 은행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로 상승 반납

•미 증시는 퍼스트 시티즌스(+53.74%)가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를 발표하자 지역 은행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출발. 더불어 도이치뱅크(+4.71%)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하는 등 안정을 찾은 점도 긍정적인 영향. 그렇지만, AI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자 관련 종목 중심으로 잠시 쉬어가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등 개별 종목의 영향이 확대. 결국 시장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은행 리스크가 완화 불구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혼조 마감(다우 +0.60%, 나스닥 -0.47%, S&P500 +0.16%, 러셀2000 +1.08%)

특징 종목: 금융, 에너지 강세 Vs. 중국 기업, 기술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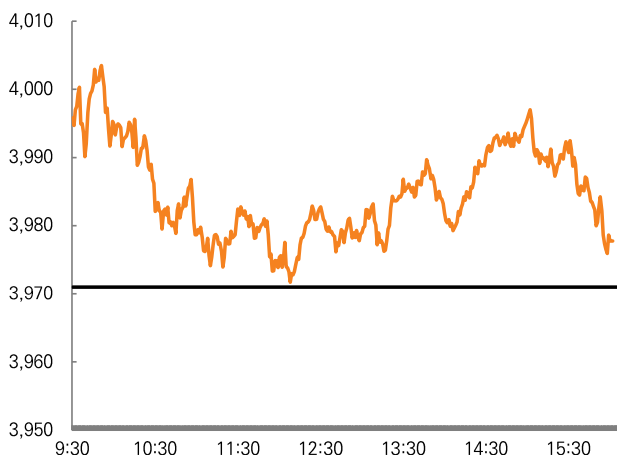
•퍼스트 시티즌스(+53.74%)가 SVB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한단계 도약 가능성이 부각되며 급등. 퍼스트 리퍼블릭(+11.81%)은 규제 당국이 긴급 대출 확대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도이치뱅크(+4.71%)는 CDS 프리미엄이 급락하자 상승. MS(-1.49%), 알파벳(-2.83%), 메타(-1.54%), 엔비디아(-0.93%) 등 AI 관련 종목군은 EU 경찰인 유로폴(Europol)이 CahtGPT 등 AI 시스템을 범죄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 특히 알파벳은 반독점 소송 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낙폭이 컸음

한국 증시 전망: 마이크로 실적 발표 앞두고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34%, MSCI 신흥 지수 ETF는 0.5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5.5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5% 상승. KOSPI는 보험권 출발 예상

•미 증시는 지역 은행 리스크가 완화된 데 이어 도이치뱅크(+4.71%) CDS 프리미엄이 급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을 보이며 상승 출발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은행 리스크 완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산업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 물론, 대형 기술주가 AI 산업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언급한 유로폴의 발표를 빌미로 차익 매물을 내놓은 점과 화요일 마이크로(-2.24%)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1% 하락한 점도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 후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09.22	-0.24	상해종합	3,251.40	-0.44
KOSDAQ	827.69	+0.43	홍콩항생	19,567.69	-1.75
DOW	32,432.08	+0.60	베트남	1,052.25	+0.52
NASDAQ	11,768.84	-0.47	유로스톡스 50	4,164.62	+0.82
S&P 500	3,977.53	+0.16	영국	7,471.77	+0.90
캐나다	19,624.74	+0.63	독일	15,127.68	+1.14
일본	27,476.87	+0.33	프랑스	7,078.27	+0.90

글로벌투자파트너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① 은행 리스크 완화와 전망

실리콘밸리 은행이 퍼스트 시티즌스(+53.74%)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퍼스트 리퍼블릭(+11.98%)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자 미국 지역은행발 우려가 완화. 더 나아가 도이치뱅크(+4.71%)의 5년 CDS 프리미엄이 지난 금요일 급등을 뒤로하고 월요일에는 급락하는 등 안정을 보인 점도 은행업종 우려 완화 기대를 높임.

한편,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실리콘 밸리 은행에 대한 의회 증언에서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며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 리스크 완화에 힘을 줌. 여기에 더해 실리콘밸리는 관리 부실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주장. 실리콘밸리는 팬데믹 기간 매우 빠른 예금 성장을 보였고, 이 예금을 장기 증권에 투자해 이익을 증가시켰지만, 이 자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위험 측정 도구,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지 않는 등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언급.

이 같은 실패로 인한 전염이 광범위한 은행 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준을 비롯한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 보증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다고 발표. 더불어 은행 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을 언급. 현재 자산군별로 나누어 감독 중이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중인 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1천억 달러 기준선을 넘은지 3년이 되는 2024년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 이는 은행 시스템의 탄력성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 결국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는 개별 은행의 문제이며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해 전반적인 은행주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

다만, 현재 낮은 수준임에도 미국 자동차론, 신용카드, 모기지 등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여기에 8월말 이후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황이 시작되면 이러한 연체율이 더욱 증가해 금융업종의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실제 미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러한 연체율의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 관련해 4월 14일 시작되는 금융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중요.



금융, 에너지 강세 Vs. 중국 기업, 대형 기술주 부진

퍼스트 시티즌스(+53.74%)가 실리콘 밸리 은행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한단계 도약 가능성이 부각되며 급등. 퍼스트 리퍼블릭(+11.81%)은 규제 당국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긴급 대출 확대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실버게이트(+14.53%)는 지난 금요일 52% 급등에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 도이치뱅크(+4.71%)는 CDS 프리미엄이 급락하자 상승. JP모간(+2.87%), BOA(+4.97%), 웰스파고(+3.42%) 등 대형 은행주도 강세.

바이두(-2.27%)는 챗봇 ‘어니’ 출시 계획을 취소하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에 하락. 핀뒤(-3.08%)는 보안 취약성이 발견돼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는 소식에 하락. 그 외 바이든이 PCB 관련 부품의 국내 생산을 위해 국방 생산법을 발동하자 미 중 갈등 우려로 알리바(-0.90%), 징둥닷컴(-1.27%), 넷이즈(-1.17%) 등 중국 기업들이 하락. 비트코인이 바이낸스 고소로 하락하자 코인베이스(-7.80%), 마이크로스트래티지(-6.90%) 등이 부진.

MS(-1.49%), 알파벳(-2.83%), 메타(-1.54%), 엔비디아(-0.93%) 등 AI 관련 종목군은 EU 경찰인 유로폴(Europol)이 CahtGPT 등 챗봇에 대해 기능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범죄자가 이러한 AI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 특히 알파벳은 반독점 소송 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낙폭이 컸음. 마이크로(-2.24%), 브로드컴(-1.47%) 등 반도체 업종은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 관련 심사를 세밀하게 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81	대형 가치주 ETF (IVE)	+0.52
클린테크 ETF (CTEC)	0.00	중형 가치주 ETF (IWS)	+0.94
소매업체 ETF (XLY)	+0.20	소형 가치주 ETF (IWN)	+1.07
온라인소매 ETF (EBIZ)	-0.12	대형 성장주 ETF (VUG)	-0.46
미국 인프라 ETF (PAVE)	+1.02	중형 성장주 ETF (IWP)	+0.61
핀테크 ETF (FINX)	+0.56	소형 성장주 ETF (IWO)	+1.1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68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99
클라우드 ETF (CLOU)	+0.23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9
사이버보안 ETF (BUG)	+0.90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6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04	미국 국채 ETF (IEF)	-1.2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26	하이일드 ETF (JNK)	-0.16
바이오섹터 ETF (IBB)	+0.13	신흥국 채권 ETF (EMBD)	-0.59
로봇&AI ETF (BOTZ)	+0.49	물가연동채 ETF (TIP)	-0.78
반도체 ETF (SMH)	-1.1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2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610.60	+2.10	+2.28	-5.68
금융	522.78	+1.32	+0.70	-11.70
산업재	827.24	+0.82	+0.14	-3.14
소재	487.64	+0.74	+0.85	-4.85
필수소비재	765.48	+0.54	+0.62	+1.07
헬스케어	1,490.71	+0.41	+0.62	-0.02
경기소비재	1,104.44	+0.18	+0.23	-2.32
유틸리티	334.24	+0.13	-1.87	-0.10
부동산	222.45	-0.36	-2.77	-7.26
IT	2,530.32	-0.85	+0.94	+6.11
커뮤니케이션	186.74	-1.08	+1.80	+7.8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종목 장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34%, MSCI 신흥 지수 ETF는 0.5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95.5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5% 상승. KOSPI는 보합권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도이치뱅크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CS와 달리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전환한 데 힘입어 상승 출발. 더 나아가 장 초반에 부각된 실리콘밸리 은행의 인수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 다만,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유입되며 수급적인 부담 속, 미 증시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지수 하락을 야기. 다만, 지수 보다는 개별 종목별 변화에 주목하며 제한적인 등락을 보임. 결국 KOSPI는 0.24% 하락했으나 KOSDAQ은 0.43%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지역 은행 리스크가 완화된 데 이어 도이치뱅크(+4.71%) CDS 프리미엄이 급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을 보이며 상승 출발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은행 리스크 완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산업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

물론, 대형 기술주가 AI 산업의 범재 이용 가능성을 언급한 유로폴의 발표를 빌미로 차익 매물을 내놓은 점은 부담이나 AI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엔비디아 등 일부 종목군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다만, 중국 기업들이 미 증시에서 개별 악재와 바이든의 PCB 생산을 위한 국방 생산법 발동으로 미-중 갈등 우려가 높아져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은 부담. 더불어 화요일 마이크론(-2.24%)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1% 하락한 점도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미 증시의 특징처럼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

3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13.5나 예상치인 -11.0보다 둔화된 -15.7로 발표. 특히 신규주문이 -13.2에서 -14.3으로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다만 생산지수는 -2.8에서 +2.5로 개선.



국채 금리, 은행 리스크 완화로 급등

국제유가는 은행 리스크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경기에 대한 기대 속 수요 증가 기대감이 부각되며 상승. 더 나아가 이라크가 반자치 크르디스탄 지역의 원유 수출 일부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며 5% 넘게 급등. 미국 천연가스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풍부한 재고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유럽 천연가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달러화는 은행 리스크 완화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 파운드화는 베일리 BOE 총재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달러 대비 강세. 유로화는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이 급락하는 등 안정을 찾아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등은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혼조세.

국채금리는 은행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채권 가격 급락에 힘입어 급등. 더 나아가 중소형 은행에서 예금 인출 속도가 최근 느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은행 리스크 완화 기대를 더욱 높임. 한편,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62배를 하회한 2.44배로, 간접 입찰도 12개월 평균인 58.9%를 하회한 52.8%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 감소도 금리 상승 요인.

금은 달러 약세 불구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은행 리스크 완화로 상승. 곡물은 밀이 쏫 커버성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으며 대두는 대두유가 급등한 영향으로 상승. 옥수수 수출 소식에 상승 전환.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6% 상승했으나, 철근은 0.02%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81	+5.31	+7.55	Dollar Index	102.835	-0.27	-0.43
브렌트유	78.12	+4.21	+5.91	EUR/USD	1.0798	+0.35	+0.72
천연가스	2.09	-5.73	-6.03	USD/JPY	131.53	+0.61	+0.16
금	1,971.50	-1.27	-1.18	GBP/USD	1.2289	+0.46	+0.09
은	23.15	-0.53	+2.51	USD/CHF	0.9157	-0.45	-1.44
알루미늄	2,363.50	+1.13	+3.91	AUD/USD	0.6649	+0.06	-1.03
전기동	8,964.00	+0.48	+3.06	USD/CAD	1.3658	-0.63	-0.04
아연	2,912.00	+0.71	+0.92	USD/RUB	76.9204	-0.46	+0.24
옥수수	648.25	+0.66	+2.25	USD/BRL	5.1959	-0.97	-0.80
밀	698.00	+1.31	-0.46	USD/CNH	6.8843	+0.25	+0.16
대두	1,442.25	+0.93	-2.99	USD/KRW	1,301.50	+0.56	-0.66
커피	176.90	-1.31	-0.90	USD/KRW NDF1M	1,295.55	+0.20	-0.5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536	+15.93	+5.08	스페인	3.263	+7.50	+6.60
한국	3.262	+4.00	-2.80	포르투갈	3.097	+9.30	+8.60
일본	0.320	+0.40	+7.00	그리스	4.107	+2.00	0.00
독일	2.227	+9.80	+10.20	이탈리아	4.064	+5.40	+7.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